

전남 동부권

“여수시민 위한 사회공헌사업 해달라”

市,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에 인재육성·사회복지 등 9개분야 공식 제안

여수시가 민선 출범이래 여수산단 입주업체에 사회공헌사업을 처음으로 공식 제안하고 나설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제안은 과거 일부 대기업에 개별적으로 제안해 온 것과 달리 공장장협의회라는 공식 창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

9일 여수시 관계자는 “오는 18일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장 선거가 끝나는 대로 사회공헌사업을 정식 제안할 계획이다”며 “개별 기업이 아닌 협의회를 통하는 것은 산단 전체로 사회공헌사업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달 안으로 여수산단 공

장협의회 관계자들을 시청으로 초대해 업무보고와 함께 김충석 여수시장이 사회공헌사업을 정식 제안할 계획이다.

앞서 여수시는 여수산단 모 기업에 수영장 건립과 관련해 300억대 사회공헌사업을 제안했으나 해당 기업이 낙선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수시는 현재 사회공헌사업 대상으로 ▲인재육성/교육/훈련▲조형예술▲문화/예술▲체육시설▲공원시설▲항만시설▲관광교통▲의료/보건▲사회/복지 등 9개분야 19개 사업을 잠정 선정한 상태다.

이같은 여수시의 계획은 현재 여수산단이 연간 70조의 매출을 올리면서

도 GS칼텍스의 문화예술공원 조성 사업을 제외하고는 그룹 차원의 대규모 사회공헌 사업은 전무한 상태라는 현실에서 비롯됐다.

또한 여수산단의 사회공헌활동이 후원이나 결연, 임수리 사업 등 공동 재적 사업이 아닌 자원봉사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여수시의 예산 난도 한 끝 차지하고 있다.

실제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등 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수산단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여수시장의 공식 제안을 계기로 여수산단공동발전협의회 등과 TF팀을 구성해 기념비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발굴해 추진

■ 여수산단 사회공헌 가능 사업 목록	
분야	사업내용
인재육성 교육훈련	- 여수산단 인재육성 기금조성 - 영어티머니 조성사업 시행하고 설립 - 마이스터고·자율형 시립고 설립 - 광생교육관 건립
조형예술	- 통일교복선·이순신장군 통상 건립 (이순신 광장 페스티벌)
문화·예술	- 향일 복음당 기념탑 건립 - 백암회 기념탑 건립 - 여수시립 어여운 설치
체육시설	- 미술관·문학관 건립
공원시설	-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
항만시설	- 미리나 항만
관광·교통	- 국가기단 홍보관 건립(산업시설 및 아경관 광장 조성)
의료·보건	- 만화의 광장 조성(여수시 입구)
사회복지	- 신재생원 설립 운영 - 실비타운 조성

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석유화학업계가 최근 경기 악화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공장 증설 등으로 재정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여수시의 제안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성과를 내기까지는 진통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농수축산물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가비행 종합시험센터, ‘나로 우주 공원’ 등 국가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초기 착공할 예정이다.

박 교수는 “제주도와 고흥간 폐 속선 취항을 위한 접안시설을 확충하고, ‘고흥 9미 10경 관광지 조성’, 남양지구 남해안 관광벨트, 해양제자 친수공간 조성,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은 계획대로 조성하여 다양한 관광객 유인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흥~여수간 연륙·연도교, 고흥 나들목 설치, 녹동항 정비 등 국책사업은 예산확보가 관건인 만큼 적극 대처해 나가고, 국비 480억원을 확보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은 본격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교수는 복지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흘로 사는 어르신을 위한 ‘응급안전 돌보미 전산시스템’ 구축, ‘경로당 태양열 난방시설’ 설치와 함께, 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군민 모두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으로 융발전기금 목표액 100억원을 달성한 만큼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신념으로 교육 환경개선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박종종 교수는 “성공을 위해 가

장·중요한 것은 ‘비전과 결단력’,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다”

면서 “긍정의 힘으로 우리의 목표를 향해 하나씩, 하나씩 일구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iju@

수형자 17명 전문 자격증 취득

청암대 순천교도소 캠퍼스

순천교도소(소장 지상연) 수형자 17명이 최근 전문학사과정을 통해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

순천교도소는 최근 소내 대강당에서 2011학년도 순천청암대학 선편캠퍼스 호텔조리학과 제8회 졸업식을 가졌다.

이번 학위를 받은 수형자들은 2년간 전문학사과정을 통해 다양 한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학식·양식·일식조리 기능사·제빵기능사 등 4종의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

순천교도소와 순천 청암대학

은 지난 2003년 1월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하고 교도소 내에 선편 캠퍼스를 설치, 8차례에 걸쳐 200여명의 졸업장을 배출했다. 청암대학 선편캠퍼스는 고등직업 교육을 통한 수형자의 재범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호텔외식조리과 특성에 맞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요식업 관련 자격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는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상연 소장은 “현대 교정은 수형자재법을 방지하고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엑스포 4대 시민운동 앞장”

여수상의 신년 인사회

여수상공회의소는 최근 디오션리조트에서 박람회 성공개최와 지역 경제 발전의 염원을 담은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강동식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위원장, 김충석 여수시장을 비롯한 도·시 의회 의원과 의원, 각 기관단체장들과 기업체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심장섭 여수상의 부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성공박람회를 위해 우리 상공인은 물론 지역민 모두가 하나되어 엑스포 4대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우리 상의는 지역경제회복과 발전의 질 향상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정읍시는 올해 첨단 산업 단지와 태인 농공단지의 입주로 640명의 고용창출과 노인·장애인·여성 등 취약계통 4600개 일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의 노후주택 개선(641세대)과 취약계층(100세대) 집수리비 600만원씩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KTX 개통에 대비 지하도 개설·지중화사업·정읍IC~롯데마트간 도로 확·포장 ▲1000ha의 광역 친환경 농축산단지 조성 등 민생 6대 과제를 추진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석 여수시장은 축사에서 “1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여수지역 기업인·상공인·단체장·시민 모두가 함께 마지막 힘까지 쏟아 내자”며 “성공 박람회를 반드시 이뤄내 인구 40만의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고, 살고 싶은 ‘국제해양관광 메포츠 도시 여수’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여수 상공대상 시상식에서는 ▲경영부문 삼합전력 정석만 대표 이사 ▲산업평화부문 여수산단 건설업 협의회 김철호 회장▲지역개발부문 전남대 최창호 교수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부취재본부=김정희기자 chkim@

전 북



내장산 관광특구 개방 겉기대회

명이 참가했다.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및 무료개방 기념 걷기행사’가 지난 7일 내장산 일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읍 시민과 관광객 등 1000여명이 참가했다.

침식피해 고창 구시포 연안 정비 예산 확보 싸고

군·지역국회의원 공다툼 ‘눈살’

백사장이 유실되고 모래 비탈면이 깎이는 등의 침식피해가 발생한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 연안에 대한 정비가 추진된다.

고창군은 “구시포 해수욕장 주변에 국비 427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연안해역 정비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구시포 이용 고도화 사업은 농림식품부 2011년도 공모사업으로 올해 기본계획 용역을 한 후 2013년 실시 설계 및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국 어항 109개소 중 4개항이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구시포 해안은 수년 전부터 연안침식과 모래유실 등의 피해가 생겨 관

었다. 군은 진행 중인 구시포항 고도화사업과 연안해역 정비사업이 끝나면 구시포항 주변이 휴양과 페리장을 즐기는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구시포 연안 사업 예산 확보를 두고 고창군과 지역 국회의원이 서로 공을 다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고창군은 지난 5일 도내 일간지에 실린 김춘진 의원의 ‘구시포 어항 고도화사업 예산 확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김 의원의 언론 플레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결정 되기까지 고창군, 관계기관, 어항 전문

가 등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정책방향 등을 과학한 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했다”며 “국내 유일의 와인 글라스 형태의 어항(지역특성)과 풍부한 어족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창군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수 군수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고자 어렵고 힘들게 국가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모든 것이 개인의 노력으로 사업비가 확보된 것처럼 보도돼 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정부활동상을 보도자료로 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뉴스 브리핑

의산 시립 영동도서관 문화 숨쉬는 공간으로

공연실황, 피아니스트 이루마 콘서트 실황 등을 선보인다.

또 ‘독요미술’은 유명 명화 작품의 탄생배경,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로 구성되어 주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정읍시 내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정읍시는 2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정읍시는 “시민 가계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다음달부터 당 상수도는 평균 50원 인상(6%)된 875원, 하수도는 39원 인상(15%)된 303원이 적용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5년 이후 6년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해온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김제 ‘지평선 햇감자’ 브랜드 품목 선정

김제시 ‘지평선 광활 햇감자’가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2012년도 빛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빛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은 전국 5개 지역을 선정해 개소당 10

만 유치관련 소프트웨어 사업 등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도시민 유치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순창군에는 299농가 737명의 도시민이 귀농·귀촌해 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남원 농특산물 올 2800만달러 수출 목표

남원에서 생산된 파프리카와 전통주 등 농·특산물이 세계 각지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다.

남원시는 “지역 농·특산물 수출이 지난 2009년부터 매년 20%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전년보다 29% 증가한 2347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파프리카, 배, 멜론, 쌀, 포도, 딸기, 화훼, 오이 등 농산물을 일본, 대만,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 동남아, 러시아 등 14개국에 수출했고 음료·만두·우동·전통주·액상차·홍삼·축산물 등 가공식품은 아시아를 비롯한 미주지역, 유럽, 오세아니아 등 20여개국에 수출됐다.

남원시는 해외 수출시장 개척 일환

으로 홍콩·베트남·상해 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농·특산물 홍보전시관을 운영했다.

또는 프랑스 파리 대형 유통매장에서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열어 9억5000만원(60t)을 현장판매했다.

특히 파프리카의 경우 올해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으로 35억원(700t) 어치를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p